

장흥군 예양공원 '역사 향기숲 테마공원' 된다

탐진강·토요시장·동학농민기념관 등 아우르는 사업 일자리 창출·문화축제 개최로 서부권 균형발전 기대

장흥군이 장흥읍 예양공원을 '역사 향기숲 테마공원'으로 새단장 한다.

역사 향기숲 테마공원은 장흥군 탐진강, 토요시장, 예양공원, 동학농민혁명기념관까지 아우르는 블루투어 사업이다.

사업은 군이 2020년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공모에 선정돼 100억원(도비 50억원·군비 50억원)을 투입, 추진되고 있다.

단순한 개보수에서 벗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경제 조직체 운영과 주민주도형 지역문화축제 개최 등이 함께 이뤄진다.

군은 모두가 참여하는 공원을 조성해 장흥읍 서부권 균형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복안이다.

지난해에는 지역민과 함께 장흥읍성 둘레길 내 노후되고 파손된 동문정(배비정)을 개축하고 위험

구간 안전계단 설치 등 우선적인 준비를 마쳤다.

현재까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BF(장애물 없는 환경)인증, 군관리계획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을 마치고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역사 향기숲 테마공원은 우리나라 동서남북을 상징하는 사방진 테마공원으로 조성된다.

군민의 추억이 깃든 수녕정(팔각정)은 존치하고 주변에 1층 규모의 다목적 숲속공방을 신축해 2층은 탐진강, 억불산 등 장흥읍을 전망할 수 있도록 전망대로 활용한다.

국공장(흥덕정) 인근에는 동학농민혁명을 상징하는 1600송이 LED국화 조명·조형물과 다목적 기획전시실을 신축하고 노후된 영화당은 관리동과 화장실 2동을 새롭게 단장한다.

장흥군 관계자는 "탐진강 야간경관 조성사업, 토



역사 향기숲 테마공원으로 거듭나는 장흥읍 예양공원 조감도. <장흥군 제공>

요시장 먹거리 개선사업, 정남진 장흥 물축제 등과 연계해 장흥읍 서부권 관광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나주시 청년기자단 모집 24일까지

나주시가 오는 24일까지 나주 지역 정보를 전달할 '청년 기자' 5명을 모집한다.

소셜미디어(SNS) 청년기자단은 나주에 사는 만 18~34세 청년이라면 지원할 수 있다.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2개 부문으로 나눠 총 5명을 모집한다.

청년기자단은 자신의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계정을 활용해 나주시 청년센터의 청년 정책과 현안 등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활동 기간은 다음 달부터 11월까지이다.

나주시는 홍보 활동에 필요한 콘텐츠 제작 지원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전자우편(kims8056@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청년 세대 시각으로 또래 이야기를 흥미롭게 전해줄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함평군, 체코 리베레츠시와 문화 교류 협약

이상익 군수 "농업·경제로 확대"

함평군이 동유럽의 명품 도시인 체코 리베레츠시와 협약을 맺고 문화예술 정책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함평군은 이상익 군수 등 함평군 방문단이 지난 12일부터 5박7일 일정으로 체코 리베레츠시를 방문해 아로슬라프 자메치니크 시장과 우호교류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함평군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학대전 개막 기념 체코 '세베라체 합창단'의 공연이 계기가 됐다.

60여년 전통의 체코 대표 청소년합창단이자 리베레츠시를 대표하는 합창단인 세베라체 합창단은 국학대전 기간 중 함평에서 최고의 무대를 선사했다.

협약식 후 이상익 군수와 이반 랑그르 부시장 등은 리베레츠시 주요 산업시설인 크리스탈 공장을 방문했으며, 세베라체 합창단 65주년 기념 공연 등을 관람했다.



이상익(왼쪽 두번째) 함평군수가 지난 12일부터 5박7일 일정으로 체코 리베레츠시를 방문해 아로슬라프 자메치니크 시장과 우호교류 협약식을 가졌다. <함평군 제공>

이 군수는 "체코 리베레츠시와 협약을 통해 문화 예술은 물론 농업, 경제까지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장성군 계약직 공무원들, 근무 중 골프?

정수장 창고에 연습실 차려 놓고 연습 "식수 보급시설 부실관리" 우려 목소리

장성군 계약직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중에 골프연습을 하는 등 안전시설에 대한 부실관리 정황이 드러나 우려를 낳고 있다.

지역 주민 등의 제보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장성군 맑은물사업소 소속 직원(정원직)들이 근무 중에 자리를 비워가며 골프연습을 했다.

이들은 공공시설인 정수장(장성읍 소재·식수원 관리)의 안전관리를 하는 계약근무자로 오전에는 2명 야간에는 1명이 근무하게 되어 있으며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며 정수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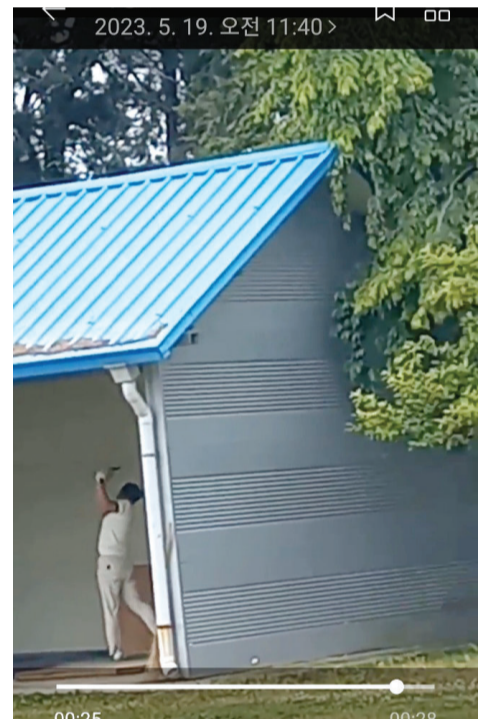
하지만 이날 오전 근무 중에 창고에 간이 연습실을 차려 놓고 골프연습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근무자가 창고에서 골프연습을 했던 날은 정수장 출입도로 포장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안전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 정수장은 장성읍 지역 등에 식수를 보급하는 시설이어서 외부인 출입 통제나 흡시 모를 생화학테러 등 위험 요인이 많아 안전 관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같은 날 근무자가 오전 11시 40분에 점심을 먹기 위해 근무지에서 나가는 등 근무시간 준수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을 제보한 주민 A씨는 "다른 곳도 아니고 군민의 생명수를 다루는 정수장 관



장성군 맑은물사업소 소속 직원이 지난 19일 근무 중에 골프연습을 하는 모습. <독자 제공>

리가 이렇게 허술하다니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근무체계와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시스템 전반에 걸친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점검해 직원들을 징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담양군 "AI로 저성장·인구위기 대응"

국토연구원과 빅데이터 활용 도시계획 기술개발 협약

담양군이 최근 국토연구원과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도시계획기술 개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빅데이터에 기반한 도시계획 기술개발에 상호협력하고 데이터 기반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담양군이 국토부의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도시계획 R&D' 기술 시범적용을 위한 실증사업 대상 지자체로 최종 선정되면서 이뤄졌다.

'AI 도시계획R&D'는 다양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생활권을 설정하고 토지이용과 기반시설 수요 예측을 통해 최적의 도시계획 수립을 지원

원하는 사업이다.

담양군은 신용카드와 이동통신, 고속도로 통행량 등을 분석해 지역 관광자원 유입 인구와 인근 도시 연계 체험·관광인구를 추정해 생태관광에 최적화된 기반시설을 배치하는 '자립형 경제도시 건설'을 실현할 계획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인구감소, 저성장 등에 대한 국토정책에 부응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군 기본계획 수립과 플랫폼 구축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지방정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겠습니다

보험사기 ZERO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